

동반관계와 도구관계의 표현양식에 대한 언어유형학적 연구*

- 독일어와 한국어를 중심으로 -

신용민(경상대/전남대)

1. 서론

‘동반’과 ‘도구’의 의미관계를 말할 때 일반적으로 동반격(Komitiv)과 도구격(Instrumental)이라는 개념을 사용하는데, 이것은 다양한 격(Kasus)-시스템을 가진 언어의 형태론적 분석에서 그 전형을 찾고자 하는 개념이다. ‘동반’과 ‘도구’관계는 여러 언어에서 종종 같은 방법으로 표현되는 경우가 있는데, 이러한 몇몇 언어들의 현상을 바탕으로 많은 언어학자들이 동반격과 도구격 사이의 ‘형태적 겹침현상(morphologischer Synkretismus)’을 규명하려는 노력을 해왔다. 이는 Lakoff & Johnson의 다음과 같은 주장에도 잘 나타나 있다.

“With few exceptions, the following principle holds in all languages of the world: the word or grammatical device that indicates Accompaniment also indicates Instrumentality.” (Lakoff & Johnson 1980:135)

이것은 이른바 ‘Lakoff-Johnson-Universal’라고 불리는데 이를 뒷받침하고 검증하고자 하는 대표적인 연구자로 Thomas Stolz를 들 수 있다.¹⁾

물론 여러 언어에서 동반격과 도구격의 형태적 겹침현상을 찾아 볼 수 있지만 이것을 주장하는 학자들의 대부분은 ‘형식(문법)적 접근방식’을 기초로 하여 어떤 형태소가 동반관계와 도구관계를 표현할 수 있는가에 주된 관심을 두었다. 그 결과 파트너, 동반자, 이동수단, 조작수단, 사용재료 등과 같은 다양한 참여자관계의 표현 전체를 아우르는 연구는 상대적으로 소홀히 하게 되었다. 그러나 ‘기능(문법)적 접근방식’으로 보면 위와 같은 참여자(Partizipant)의

* 이 논문은 2003년도 한국학술진흥재단의 지원에 의하여 연구되었음(KRF-2003-037-A00264).

1) 이에 관련된 연구논문 Thomas Stolz 1994, 1996a, 1996b, 1997d, 1997e, 2001 등 참조.

의미관계는 하나의 ‘기능적 영역(funktionale Domäne)’을 구성하고 있으며, 이러한 참여자 관계(Partizipantenrelation)는 많은 언어에서 하나의 격시스템 또는 하나의 통일된 방법으로 표현 되지 않을 수도 있다는 점을 발견하게 된다. 즉 한 언어 속에서도 위에서 언급한 모든 참여자들의 의미관계를 표현하는데 하나의 통일된 방법을 사용할 수도 있고, 부분적으로 같은 방법을 사용하거나, 더 나아가 각각의 참여자를 다른 방법으로 표현할 수는 가능성이 열려 있다는 것이다.

본 연구에서는 위에 언급한 모든 참여자들의 의미적 관계를 하나의 ‘기능적 영역’의 차원에서 다룰 수 있다고 보고, 이 ‘기능적 영역’이 이론적으로 어떤 언어학적 기준에 의해서 설명될 수 있는가를 밝히고자 한다. 그리고 파트너, 동반자, 이동수단, 조작수단, 사용재료 등과 같은 개념들을 출발점으로 삼아 이론적으로 가능한 표현양식들을 제시하며, 연구 대상의 언어는 어떤 표현 가능성을 소유하고 있으며, 개별 언어에 나타나는 동반관계와 도구관계들의 통일된 또는 다양한 표현방식들이 언어학적으로 어떻게 설명될 수 있는가를 독일어와 한국어를 시범 연구대상으로 삼아—필요한 경우에는 다른 언어의 예를 들어—밝히고자 한다. 이러한 과정을 통하여 기능문법적 접근방식에 바탕을 둔 유형론의 연구틀(funktional-typologisches Rahmenwerk)을 발전시켜 본 연구 주제와 관련된 후속 연구의 질적 양적 발전에 조금이나마 기여하고자 한다.

2. 이론적 배경

언어기호를 관찰 또는 분석하는 방법은 크게 두 가지 접근방식으로 나눌 수 있다. 형식(Form) 또는 구조(Struktur)를 관찰의 출발점으로 삼아 그것의 의미 또는 기능(Funktion)을 찾는 방식을 택할 수 있고(즉 Semasiologie), 또 역으로 어떤 개념이나 기능을 관찰의 출발점으로 삼아 그것을 표현하는 형식과 구조를 찾는 방식을 택할 수도 있다(즉 Onomasiologie). 문법이론의 차원에서는 일반적으로 전자와 같은 경우를 ‘형식(문법)적 접근방식’이라 부르고 후자의 경우를 ‘기능(문법)적 접근방식’이라 부른다. 본 연구는 유형학적 비교영역의 출발점을 언어의 형태적 구조의 측면보다 개념적(또는 기능적) 영역에서 접근하

고 있으며, 여러 언어에서 이것을 표현하는 동질적인 비교 대상의 구조를 찾아내는 방식을 취하고 있다.

개별언어 또는 언어유형학적 연구에서 동반관계와 도구관계를 하나의 기능적 영역의 차원에서 기술하려는 노력은 이미 Hansjakob Seiler의 1974년 논문 『The principle of concomitance: Instrumental, comitative and collective(with special reference to German)』에서 시도 되었다. 영어에 대해서도 Nilsen이 1973년 『The instrumental case in English: Syntactic and semantic considerations』에서 동반관계와 도구관계를 ‘형식적 접근방식’과 ‘기능적 접근방식’의 양 측면으로 기술하려는 시도가 있었다. 그러나 Seiler와 Nilsen의 시도는 파트너, 동반자, 이동수단, 조작수단, 사용재료 등과 같은 참여자관계를 하나의 이론적 체계로 연결시키는 것까지는 미치지 못했다. 1990년대에 들어서 Thomas Stolz에 의해 동반관계와 도구관계에 대한 언어유형학적 연구가 광범위하게 이루어지기 시작했으며, 그의 연구는 대부분 ‘형식적 접근방식’에 기본을 두고 Lakoff & Johnson 1980과 그 맥을 같이한다고 볼 수 있다.

다양한 언어들에 가능한 많이 종합적으로 비교분석하고 그 언어들에의 유형적 특징을 밝히기 위해서는 우선 언어학적 특정 영역을 비교의 대상으로 설정해야 하며, 언어유형적 비교연구가 설득력을 얻을 수 있기 위해서는 되도록 모든 언어에서 찾아 볼 수 있는 공통적인 비교의 바탕을 설정해야 한다. 그 비교영역을 본 연구에서는 ‘동반관계와 도구관계’로 잡았다. 여기서 ‘동반 & 도구관계’의 개념은 ‘어떤 상황에서 참여자 Y가 그 상황을 실현하는데 수반하는 다른 참여자 X와의 관계’를 대표적으로 또는 함축성 있게 표현한 것이며, 사실은 참여자 X에 관련된 파트너관계, 동반관계, 이동 및 운반수단, 조작수단, 사용재료 등을 포함하는 넓은 의미의 개념이다.²⁾ 이때 참여자 X의 총칭을 기능문법에서는 ‘수반자(Concomitant)’라 하고 수반자 X와 관련된 다양한 의미관계의 총칭을 ‘수반자관계(Concomitant relation)’라고 부른다.

본 연구는 모든 언어에는 위에 언급한 수반자 X의 다양한 관계들을 표현하는 구조가 있다는 전제에서 출발한다. 각 언어마다 표현하고자 하는 어떤 개

2) 본 연구에서 ‘동반관계’와 ‘도구관계’라는 개념은 좁게는 ‘동반자와 조작수단의 관계(komitative und instrumentale Relation)’만을 일컫는 의미로도 사용된다.

념적인 영역이 공통적으로 존재한다고 볼 때 이것이 언어적 표현의 다양한 모습으로 실현되는 개념적인 연결고리들을 체계화시킨 것이 언어의 기능적 영역 — 이에 해당하는 본 연구의 기능적 영역은 Concomitance — 이다. 언어의 이러한 기능적 영역이 표현되는 다양한 언어구조에는 여러 가지 ‘기능적 매개변수(funktionale Parameter)’가 작용한다. 물론 이 매개변수가 언어의 형식적인 면에 영향을 미치는 범위는 각 언어마다 다를 수 있다. 이는 바꿔 말하면 언어마다 기능적 매개변수들의 스펙트럼이 일치하지 않다는 것이다.

수반자 관계에 놓여 있는 참여자의 X를 좀 더 자세히 살펴보면 파트너(Partner), 동반자(Companion), 이동수단(means of locomotion: Vehicle), 조작수단(means of manipulation: Tool), 사용재료(material used: Material), 양태(Manner), 부가적 상황(Circumstance)까지 구분할 수 있는데, 그 중에서 ‘양태’와 ‘부가적 상황’은 후속 연구에서 좀 더 심도 있게 다룰 계획이기 때문에 본 연구의 대상에서 제외한다. 이들의 구체적인 예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1) 파트너관계: 이는 어떤 상황 S에서 행위자 Y가 수반하는 참여자 X와의 상호적 관계(reziproke Relation)를 말한다. 이때 수반자 X는 주어진 상황의 동행위자(co-actor)로 해석될 수 있다. 이에 상응하는 개념적 슬어는 ‘X associates with Y in S’로 나타낼 수 있다.

- (1) a. Peter streitet mit seinem Freund.
b. Er hat seine Freundin getroffen.

2) 동반관계: 수반자 X가 행위자 Y의 비상호적 동반자로 나타나는 관계다. 이에 상응하는 개념적 슬어는 ‘X accompanies Y in S’로 나타낼 수 있다.

- (2) a. Max fängt die Katze mit Moritz.
b. Er kam mit Kaffee zurück.
c. Er trinkt Kaffee mit Zucker und Milch.

3) 이동 및 운반수단: 장소의 이동이나 운반을 나타내는 상황에서 행위자 Y

가 사용하는 수단, 즉 ‘Y uses X for locomotion’과 같은 상황의 수반자 X이다.

- (3) a. Sie fährt mit dem/im Rollstuhl.
- b. Sie fliegt mit dem Flugzeug.
- c. Peter holte eine Kiste Bier mit/auf dem Fahrrad.

4) 조작수단: 어떤 피행위자 Z를 조작하는 상황에서 행위자 Y가 사용하는 수단. 즉 ‘Y uses X in manipulating Z’와 같은 상황의 수반자 X이다.

- (4) a. Er hat sich das Gesicht mit Ruß beschmiert.
- b. Er hat die Gäste mit Wasser besprengt.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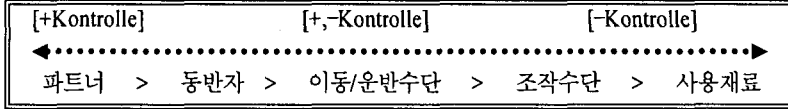
5) 사용재료: 어떤 피행위자 Z를 만들거나 생산하는 상황에서 행위자 Y가 사용하는 재료. 즉 ‘Y uses X in creating Z’와 같은 상황의 수반자 X이다.

- (5) a. Er hat ein Haus aus Ziegelsteinen gebaut.
- b. Er hat ein Spielzeug aus Holz gebastelt.

위에 언급한 여러 상황에서 수반자 관계에 놓여 있는 참여자들은 특정한 의미특성의 위계질서 — 즉 ‘통제성(Kontrolle)의 위계’와 ‘유정성(Empathie)의 위계’³⁾ — 에 놓여있다. 예를 들자면 <표 1>과 같은 통제성 또는 <표 2>와 같은 유정성의 연속선(Kontinuum) 위에 놓여 있음을 알 수 있다. <표 1>은 파트너, 동반자, 이동수단, 조작수단 그리고 사용재료가 좌에서 우의 순서로 주어진 상황에 대한 수반자의 통제성이 줄어든다는 것을 나타내는 것이다. 파트너는 동행위자로 나타날 수 있으므로 수반자 중에서 주어진 상황에 대해 가장 강한 통제성을 지니고 있다고 보는 것이며, 그 반면에 재료는 주어진 상황에 대해 통제성을 전혀 가지지 못한다는 점에서 통제성의 연속선 제일 끝에 위치한다. 이 두 참여자 사이에 동반자, 이동수단, 조작수단의 순서로 배열할 수 있다.

3) Lehmann 1998, ch. 1.2.2.1.1, Kuno 1987, Comrie 1981, ch. 9. 참조.

<표 1> 수반자의 통제성 (Lehmann & Shin 2000[T] 참조)



수반자의 하부카테고리에 속한 참여자들의 의미자질은 대체로 <표 2>의 구분과 일치한다고 볼 수 있다. 즉 파트너의 전형적인 의미자질은 [+menschlich] 이며, 동반자의 전형적인 의미자질은 [+belebt], 이동 및 운반수단은 [-menschlich, +, -belebt], 조작수단은 [-belebt, +Objekt], 재료는 [+Masse] 그리고 양태의 전형적 의미자질은 추상적인 개념 즉 [+abstrakt]로 규정할 수 있다는 것이다. 동반관계와 도구관계 상황 참여자들의 이러한 의미자질을 도표로 나타내면 아래의 <표 2>와 같다. <표 2>에서 짙게 색칠된 부분일수록 전형적인 의미자질을 나타내며 옅을수록 그렇지 않음을 나타내는 것이다.

<표 2> 수반자들의 의미자질 (Lehmann & Shin 2000[T] 참조)

수반자 \ 의미특질	유정성 ←.....→		무정성		
	menschl.	belebt	Objekt	Masse	abstrakt
파트너					
동반자					
이동/운반수단					
조작수단					
사용재료					
양태					

위에 언급한 다양한 수반자의 의미관계를 표현하는 방법들은 개별 언어마다 다양하게 나타나며, 한 언어 속에서도 하나의 통일된 방법을 사용할 수도 있고, 부분적으로 같은 방법을 사용하거나, 더 나아가 각각의 참여자를 다른 방법으로 표현할 수도 있다. 이론상 가능한 방법과 그 예를 들어보면 다음과 같다.

1) 수반적 술어(Konkomitante Prädikation): 이러한 방법에서는 동반관계와 도구관계가 특정한 동사 X를 이용해서 표현된다. 이때 '동반' 또는 '도구' 관계에 놓여있는 참여자는 동사 X의 의존사로 나타나며 이렇게 해서 복합문의 삽입 절(clause)을 이룬다. 한국어에서는 '데리고' '가지고'⁴⁾ 등과 같은 동사의 형태가 동반 또는 도구관계를 표현할 때 쓰일 수 있다. 아래 예는 HMONG 語의 경우를 보여주는데 with로 번역된 단어 nrong은 accompany 또는 follow 의 뜻을 가진 동사이다. (예, Bisang 1992: 259)

- (6) Npawg hlob nrog Yawn Pus kam kam txog siav.
 brother old with Yawn Pus fight fight arrivebreath
 'The older brother fought with Yau Pu, until his breath came to the end.'

2) 부치사 표시(Adpositionale Markierung): '동반' 또는 '도구' 관계에 놓여 있는 참여자가 전치사 또는 후치사와 결합하여 표현된다. 독일어와 영어가 그 대표적인 예다.

- (7) a. She fought with her mother.
 b. Max streitet mit Moritz.

3) 격표시(Kasusmarkierung): '동반' 또는 '도구' 관계에 놓여 있는 참여자가 격조사의 도움으로 표현된다. (예8)처럼 일본어에는 동반관계가 첨격(Additiv)이나 여격(Dativ)으로 표시된다.

- (8) a. Taro-wa kinou Hanako-to at-ta.
 Taro-TOP yesterday Hanako-ADD meet-PST
 'Taro met with Hanako yesterday.'
 b. Taro-wa kinou Hanako-ni at-ta.
 Taro-TOP yesterday Hanako-DAT meet-PST
 'Taro met Hanako yesterday.'

4) 동사의 이러한 형태를 일반적으로 *converb*이라고 한다. Haspelmath, Martin & König, Ekkehard (eds.) 1995 에서는 *gerund*라는 용어 대신에 *converb*이라는 용어를 사용하고 있다. 두 용어에 대한 자세한 설명은 Haspelmath 1995, §7 참조.

4) 동사의 변형(Verbderivation): 동반 또는 도구관계가 특정 행위를 나타내는 동사의 파생변화를 통해 표현되는데 이때 수반자 X는 파생동사의 목적어로 나타난다. 아래의 예는 Yidiñ어의 경우를 보여준다. (예9)에서 접미사 -ŋal를 가진 동사 gali:ŋal은 동반자를 직접목적어로 취하는 타동사로 파생된 것이다.

- (9) waguda-ŋgu buna gali:ŋal
 man-ERG woman(ABS) go-COM-PRS
 ‘The man is going with the woman (taking the woman).’ (Dixon 1977:109)

5) 명사의 포함(Noun Incorporation): 동사에 ‘동반’ 또는 ‘도구’를 나타내는 명사가 삽입되어 하나의 (복합)동사를 이룬 형태다. 이와 같은 방법은 (예10)처럼 Mayali어에서 찾아볼 수 있다.

- (10) Yi-yiwk-yi-rrurnde-ng.
 2/(3)-honey-COM-return-NONPST
 ‘You are taking the honey back.’ (Evans 1997:410)

6) 품사전환(Conversion): 일반적으로 잠재적인 수단을 나타내는 명사에서 전환된 동사—즉 denominales Verb—가 사용되는 경우를 말한다. 이와 같은 방법은 (예11)처럼 독일어와 영어에서 찾아볼 수 있다. 여기서 동사 radeln, segeln은 이동수단을 나타내는 명사의 전환을 통해 생긴 것이다.

- (11)a. Wir sind zur nächsten Bahnstation **geradelt**.
 ‘We have **cycled** to the next train station.’
 b. Er ist die Strecke in drei Stunden **gesegelt**.
 ‘He **sailed** the way in three hours.’

(7) 어휘적 융합(Lexikale Fusion): ‘동반’ 또는 ‘도구’관계의 참여자를 언급하지 않아도 그것을 동사의 의미 자체만으로도 추론할 수 있는 형태다. 예를 들자면 영어에서 동사 paint, blow, kick, bite 등으로 이루어진 문장에서는 그

행위의 수단을 별도의 명사구를 통해 명시적으로 표시하지 않아도 그 행위의 수단이 되는 신체의 부분들을 유추해낼 수 있다.

3. 독일어와 한국어의 수반자관계 표현양식

3.1. 파트너(Partner)

파트너는 어떤 상황에서 그 행위자와 상호적 관계에 놓여 있는 참여자이며, 이때 행위자와 파트너는 같은 레벨의 유정성을 — 전형적으로 [+menschlich] — 가지고 있다. 예를 들자면 행위자의 의미자질이 [+menschlich]이면 그의 파트너 역시 [+menschlich]의 의미자질을 가지며 그렇지 않은 경우는 찾아보기 힘들다는 말이다. 파트너 관계는 독일어에서 일반적으로 부치사표시를 통해 표현된다.

- (12)a. Max streitet mit Moritz.
b. Peter hat mit Petra getanzt.

동사의 의미자체가 상호적 관계를 내포하고 있는 경우에는 파트너가 (예13)처럼 동사의 직접목적어로 나타난다. 이러한 것을 일반적으로 associative object라고 한다(Givón 1984: ch. 4.2.5.2.5. 참조).

- (13)a. Maria hat einen alten Mann geheiratet.
b. In der Stadt habe ich meinen Freund getroffen.

위와 같은 상황에서 한국어는 격표시 방법을 사용한다. 어떤 행위자의 상호적 파트너 관계는 (예14)처럼 ‘-와, -과, -하고, -(이)랑’ 같은 첨격을 통해 표현된다. 이때 X는 인지적차원(kognitive Ebene)에서 보면 주어진 상황의 동행위자(co-actor)로 해석될 수 있다. 그에 상응하여 파트너는 (예14,b)처럼 등위접속사로 연결된 명사구로 표현될 수 있다. 즉 한국어에서 첨격과 등위접속사는

의미적 기능의 동질성을 바탕으로 한 Synkretismus 현상을 보이고 있음을 알 수 있다.

- | | | | | |
|--------|---------------------|--------------------|-----------|-----------------|
| (14)a. | 돌이-는 | 순이-와/-하고/-랑 | 매일 | 싸운-다. |
| | Toli-TOP | Suni-ADD/-ADD/-ADD | jeden.Tag | streit:PRS-DEKL |
| b. | 돌이-와/-하고/-랑 | 순이-는 | 매일 | 싸운-다. |
| | [Toli-ADD/-ADD/-ADD | Suni-TOP] | jeden.Tag | streit:PRS-DEKL |

3.2. 동반자(Companion)

동반자는 어떤 상황의 행위자와 비상호적 관계에 있는 수반자이다. 일반적으로 동반자 관계를 연구할 때 (예15.a)처럼 행위자에 관련된 동반자만 생각하기 쉬우나 동반관계는 피행위자와 관련된 것일 수도 있다 (예15.b).

- (15)a. Max fängt die Katze mit Moritz.
b. Er trinkt Kaffee mit Zucker und Milch.

그리고 상호적 상황의 파트너와는 달리 비상호적 동반자의 의미자질은 [+belebt]이거나, [-belebt]일 수 있다. 그러나 이러한 의미자질은 독일어에서 동반자 관계를 표현하는데 어떤 구조적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또 전치사 mit는 수반자가 (예16.a)처럼 정적인 상황(stative Situation)이나 (예16.b)처럼 동적인 상황(dynamische Situation)의 동반자로 나타나는 것과 관계없이 사용되며, 또 행위자의 동반자 관계에 놓여있든 (예15.a), 아니면 피행위자의 동반자이든 (예15.b), 이와 관계없이 일관되게 사용된다.⁵⁾

5) 이와 관련하여 Lusieño 어에서는 정적인 상황의 동반자와 동적인 상황의 동반자는 형태적으로 각각 다르게 표현된다. 전자의 경우는 -εs로 표시되며, 후자의 경우는 -to로 표시된다. Auyana 어에서는 행위자의 동반자와 피행위자의 동반자가 각각 다르게 표현된다, 즉 행위자의 동반자는 -kwada 그리고 피행위자의 동반자는 -yen으로 표시된다. 그리고 Guaraní 어에서는 동반자의 Belebtheit에 따라서 각각 다르게 표시되는데, 무정성의 동반자는 reheve 그리고 유정성의 동반자는 ndive와 결합하여 표시된다(Thomas Stolz 1997: 520f. 참조).

(16)a. So etwas wird es mit uns nicht geben.

b. Er kam mit Kaffee zurück.

독일어에서 동반관계를 표현할 때 중요한 현상 중 하나는 전치사 mit의 목적어가 경우에 따라서는 생략될 수 있다는 것이다. 이러한 경우에 동반자는 내재적이며, 문맥으로부터 유추해 낼 수밖에 없다. 즉 (예17.a)과 같은 자동사적 상황에서는 전치사 mit의 목적어는 행위자(Hans)의 동반자이며, 이 문장은 곧 Hans geht mit jemandem zum Zahnarzt의 뜻으로 쓰이며, 이때 잠재적인 동반자는 주어진 콘텍스트에서 유추해낼 수밖에 없다. 이와 같은 사실은 (예17,b)의 분석을 통해서도 잘 알 수 있다. (예17,b)에서 mit 다음에 생략된 동반자는 선행문장의 주어인 Heinrich 밖에 될 수 없는 것이다(Zifonun 1999 참조).

(17)a. Hans geht mit zum Zahnarzt.

b. Heinrich_(i) verließ am nächsten Tag die Stadt. Luise reiste mit (ihm_(i)).

위와 비슷하게 타동사 구문 (예18)에서는 mit 다음에 생략된 수반자 X는 피행위자—즉 Hans (예18,a)와 Kuchen (예18,b)—와 동반관계에 놓여 있다.

(18)a. Friedrich schickt Hans mit zum Zahnarzt.

b. Eva packt den Kuchen mit in das Paket. (o.c.)

(예19,a) 역시 mit 다음에는 피행위자 Elise의 동반자가 생략되어 있다. 그러나 위의 경우와는 달리 여기서는 생략된 동반자가 바로 행위자—즉 Hans—와 같다는 점이다. 즉 (예19,a)에서 mit는 재귀적 동반자관계를 포함하고 있는 것이다(cf. Zifonun 1999). 이러한 분석은 (예19,b)의 경우를 보면 좀 더 명확하게 알 수 있다. 여기서 주목할 만한 것은 전치사 mit이 동반관계 뿐만 아니라 도구관계를 표현할 때도 사용됨에도 불구하고 이와 같은 생략용법은 동반관계를 표현할 때 만 가능하다는 것이다.

(19)a. Hans nimmt Elise mit zum Zahnarzt.

b. Der Hund, den sie meistens mit (sich) auf Reisen nimmt, (...) (o.c.)

동반관계를 표현할 때 한국어는 격조사를 사용하는 방법과 수반적 술어를 사용하는 방법이 있다. 일반적으로 행위자와 동반자가 ‘유정성의 위계’의 관점에서 볼 때 같은 레벨에 있느냐 아니냐에 따라 다른 방법이 사용될 수 있는 가능성이 열려있다.

만일 어떤 상황의 행위자와 그의 동반자가 같은 유정성의 단계에 있다면 상호적 파트너를 표현하는 방법과 같은 전략을 사용한다. 즉 첨격을 사용해서 동반자 관계를 표현한다. 이때 수반적 부사 ‘같이’ 또는 ‘함께’를 첨가하는 것은 선택사항이다 (예20,a). 그러나 (예20,b)의 경우에는 동반관계의 의미가 수반적 부사 ‘같이’를 통해서 나온 것이기 때문에 이는 생략될 수 없다.

- (20) a. 동수-는 민수-와/하고 (같이) 파티-에 갔-다.
 Dongsu-TOP Minsu-ADD/ADD zusammen Party-LOK geh:PRT-DEKL
- b. 동수-와/하고 민수는 같이 파티-에 갔-다.
 Dongsu-ADD/ADD Minsu-TOPzusammen Party-LOK geh:PRT-DEKL

동반관계를 표현하는 방법이 문법적인 수단을 통해서만 이루어지는 것은 아니다. 언어에 따라 어휘적인 수단을 통해서 좀 더 직접적이고 명시적으로 표현될 수 있다. 그 대표적인 예로 한국어 (예21)의 ‘데리고’를 들 수 있다. 이때 하나의 종속절 ‘아들을 데리고’를 포함하는 복합구문의 형식을 만들어 내며, 동반자는 수반적 술어 ‘데리고’의 목적어로 나타난다. 하지만 이 동사는 본동사로서 독립적으로 사용되는 경우는 없다.

- (21) a. 그는 아들을 데리고 파티에 갔-다.
 3.SG-TOP [Sohn-AKK begleit:GER] Party-LOK geh:PRT-DEKL
- b. 민수는 순이를 데리고 왔-다.
 Minsu-TOP [Suni-AKK begleit:GER] komm:PRT-DEKL

동반자의 의미자질(또는 유정성)에 따라 다른 동사가 수반적 술어로 사용될 수 있다. 동반자가 [+menschlich] 또는 [+belebt]일 경우에는 ‘데리고’가 가장 자주 사용 된다(존대법을 쓸 경우에는 ‘모시고’). 만일 동반자가 행위자보다 낮은 단계의 유정성을 가지고 있다면 (즉 행위자가 [+menschlich]이고 동반자

가 [-menschlich]일 경우) 일반적으로 (예22)처럼 ‘데리고’, ‘몰고’와 같은 수반적 술어를 사용한다. 그러나 동사 ‘몰고’는 동반자가 [+menschlich] 일 경우에는 사용이 제한되어 있으며, 일반적으로 동반자가 [-menschlich +belebt] 인 경우나, 이동수단을 표현할 때 사용될 수 있다(제3.3.장 참조).

(22) 그는 개를 데리고/몰고 공원에 갔다.

3.SG-TOP Hund-AKK begleit:GER/anführ:GER Park-LOK geh:PRT-DEKL

동반자가 [-belebt]인 경우에는 (예23,b)처럼 첨격을 사용할 수 없고 하나 이상의 동반자를 나열하는 등위접속사 ‘und’의 용법으로만 쓰일 수 있다 (예 23,c). 이러한 경우에는 그 상황에 적합한 뜻을 가진 술어를 도입하여 동반관계를 표현하며, 이때 가장 자주 쓰이는 수반적 술어는 ‘들고’와 ‘가지고’이다 (예23.a). 이는 한국어에서 [-belebt]의 의미자질을 가진 동반자는 행위자의 한시적 소유관계(또는 소유적 통제)에 놓여있는 참여자로 개념화 되어 있다는 것을 의미하며, 그에 상응하여 소유관계를 나타내는 동사 ‘가지고’가 무정성의 동반자 관계를 표현하는데 쓰인다 (Shin 2002, ch 2.2.4.3. 참조).

(23)a. 그는 꽃다발-을 들고/가지고 왔다.

3.SG-TOP [Blumenstrauß-AKK trag:GER/hab:GER] komm:PRT-DEKL

b. * 그는 꽃다발-과/하고 왔다.

3.SG-TOP Blumenstrauß-ADD komm:PRT-DEKL

c. 그는 꽃다발-과/하고 선물-을 가지고 왔다.

3.SG-TOP Blumenstrauß-ADD Geschenk-AKK hab:GER komm:PRT-DEKL

끝으로 한국어에서 이러한 수반적 술어는 상호적 파트너 관계를 표현할 때는 쓰이지 않는다. 그리고 상호적 파트너 관계와 동반관계 모두 첨격을 통해 표현되지만 수반적 부사 ‘같이’와 ‘함께’는 일반적으로 상호적 파트너 관계를 표현할 때는 첨가 되지 않는다는 차이점이 있다.

3.3. 이동 및 운반 수단(Vehicle)

어떤 상황의 유정참여자가 행위자로 나타날 때 가장 원시적이고 전형적인 이동수단은 그의 신체, 즉 손과 발일 것이다. 이러한 것들은 강조해서 표현할 때를 제외하곤 일반적으로 명시적으로 언급하지 않는 것이 보통이다(예 Er ging nach Hause). 그 반면에 이차적 수단 즉 동물이나 어떤 기계적인 수단을 사용할 때는 이를 명시적으로 언급할 필요가 있다.

어떤 이동상황의 수반자 X는 행위자 Y의 이동수단(예24,a/b)과 피행위자 Z의 운반수단(예24,c)으로 구분할 수 있다. 전자의 경우는 전형적으로 비이행적 상황(intransitive Situation)에서, 후자의 경우는 이행적상황(transitive Situation)에서 찾아볼 수 있다.

- (24) a. Peter kam mit dem Zug.
 b. Sie fliegt mit dem Flugzeug.
 c. Peter holte eine Kiste Bier mit/auf Fahrrad.

위의 예문처럼 단순하게 보면 독일어는 이동수단 또는 운반수단과 같은 수반자 관계를 — 특히 이동수단이 어떤 기계적인 이동수단(technisches Mittel)일 경우에는 — 전치사 mit을 사용해서 표현하는 것처럼 보인다. 그러나 이동수단 또는 운반수단의 의미자질에 따라 구분해서 살펴보면 다른 전치사들도 사용되는 것을 알 수 있다(예, Sie fährt mit dem/im Rollstuhl). 이동수단이 동물인 경우에는 오히려 전치사 mit보다 auf 또는 zu가 더 자주 사용된다.

- (25) a. Johannes kam zu Pferde/auf dem Esel.
 b. Johannes ritt auf dem Pferd/Esel.

위와 같은 예문에서 이동수단으로 나타나는 동물 Pferd 또는 Esel이 아래의 (예26)처럼 전치사 mit과 결합하면 이때 Pferd와 Esel은 더 이상 이동수단이 아니라 행위자 Johannes의 동반자 관계로 표현되는 것이다. 즉 Johannes가 말이나 당나귀를 타고 (즉 이동수단) 이동하는 상황이 아니라 그 동물을 몰고

같이 이동을 하는 상황을 표현하는 것이다. 이는 (예27)처럼 어떤 동물이 운반수단으로 사용되는 상황을 살펴보면 더 잘 알 수 있다.

- (26) Johannes kam mit dem Pferd/Esel.
- (27) a. Sie transportierte es mit dem Pferd/Esel.
b. Sie transportierte es auf dem Pferd/Esel

더 나아가 신체의 일부가 이동수단으로 사용되는 경우에는 zu Fuß를 제외하곤 대부분 전치사 auf를 통해서 표현된다. 즉 이러한 종류의 이동수단은 도구의 개념보다 이동시 행위자 자신을 신체일부의 어떤 위치상태에서 이동시키는가, 즉 일종의 공간적(Lokativ) 개념으로 표현된다는 것을 의미한다.

- (28) a. Der Mann läuft **zu Fuß** erstaunlich schnell.
b. Der Mann läuft **auf den Händen** erstaunlich schnell.
c. Der kann nur **auf dem Bauch** kriechen.
d. Alle Spieler dürfen **auf den Knien** über die Matte krabbeln.
e. Alle Judoka dürfen sich nur **auf den Knien** fortbewegen.

신체의 일부나 어떤 인공의 도구가 운반수단으로 사용되는 경우에는 일반적으로 장소의 개념으로 표현되며, 그에 상응하는 장소를 나타내는 전치사 - 대부분 auf, in - 가 쓰인다.

- (29) a. Die Frau trägt **auf dem Kopf** ein großes Gefäß aus Plastik.
b. Es sind die Mädchen und Frauen, die das Wasser **in Eimern und Kanistern** aus öffentlichen Wasserhäusern holen und **auf dem Kopf** heimtragen.
c. Naturvölker tragen ihre Kinder **auf dem Rücken** oder **auf der Hüfte**.
d. Die Gläubigen tragen Zweige **in den Händen**.
(aus einem Reisebericht im Internet)

동반자와 운반수단을 표시할 때 쓰이는 전치사의 차이는 이 두 참여자가

동시에 나타나는 상황을 살펴보면 더 잘 알 수 있다. 이러한 경우에는 (예30)처럼 일반적으로 동반자를 나타내는 명사는 전치사 mit 운반수단을 나타내는 명사는 전치사 auf로 표시 된다.

- (30) a. Ein Mädchen verschwand mit einer Last auf dem Kopf ins Haus, ohne ihn zu sehen. (S. Nadolny, Die Entdeckung der Langsamkeit 1997:S.23)
 b. wenn ich einen Urlaub mit Trekkingrucksack auf dem Rücken und Umherreisen mache, [...] (aus einem Reisebericht im Internet)

명사포함(noun incorporation)의 방법은 독일어에서 이동수단을 표현할 때 거의 쓰이지 않는다. 예외적으로 radfahren 같은 동사를 찾아볼 수 있으나 그 외의 경우는 거의 찾아볼 수 없다.

품사전환을 통해 이동수단을 표현하는 방법으로 독일어에서는 karren, radeln, segeln, paddeln 등과 같은 동사들을 찾아 볼 수 있다. 이러한 것들은 어떤 특수한 이동상황에서 그 수단을 나타내는 명사가 동사화(Conversion: zero-derivation) 된 것이다. 즉 이러한 동사들은 이동수단의 필수적인 의미적 요소를 내포하고 있다.

- (31) a. Wir sind zur nächsten Bahnstation geradelt.
 b. Er ist die Strecke in drei Stunden gesegelt.

장소이동을 나타내는 동사는 그 잠재적 수단을 동사의 의미에 포함하고 있을 수 있다(즉 Lexikale Fusion). 이러한 동사로 독일에는 다음과 같은 것들이 있다: laufen, krabbeln, kriechen, fliegen, fahren usw. 이와 같은 동사는 장소의 이동을 나타내는 상황에서는 가능하나 운반수단을 나타내는 상황에서는 쓰이지 않는다.

한국어에는 ‘-(으)로’ 라는 도구격 조사가 존재 함에도 불구하고, 이동수단을 표현할 때는 수반적 술어를 사용하는 방법을 선호한다. 이는 어떤 유정 참여자가 이동수단으로 사용될 경우를 표현할 때 더 명확하게 알 수 있다. 이때 전형적으로 쓰이는 수반적 술어는 ‘타고’ 이다(예32,a). 그 반면에(예32,b.)처럼

같은 상황의 이동수단을 도구격으로 표시하는 것은 거의 비문에 가깝다.

- (32) a. 철수-는 말-을 타고 공원-에 갔-다.
 Cheolsu-TOP [Pferd-AKK besteig:GER] Park-LOK geh:PRT-DEKL
 b. *철수는 말-로 공원-에 갔-다.
 Cheolsu-TOP Pferd-INST Park-LOK geh:PRT-DEKL

수반적술어 ‘타고’는 (예33,a/b)처럼 기계적 이동수단을 표현할 때도 쓰인다. 이때 ‘타고’가 술어적 특징을 가지는 것은 (예33,a/b)의 문장에 동사 ‘타다’의 논항구조가 그대로 삽입 되어있는 것을 통해서 잘 알 수 있다. 즉 이동수단의 명사가 동사 ‘타다’의 목적어로 나타나고 격조사 ‘-을/를’로 표시되어 있음을 말한다. 그 반면에 기계적 이동수단은 (예33,c)처럼 도구격으로 표현될 수 있는데, 이러한 경우 그 문장은 중의적이다. 즉 ‘기차로’는 문맥에 따라 ‘이동의 수단’ 뿐만 아니라 ‘이동의 목적지’로 해석될 수 있다. 이는 격조사 ‘-(으)로’가 도구격 뿐만 아니라 방향격(Allativ)의 기능도 함께 가지고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이동수단의 관계를 표현할 때는 도구격보다 (예33,a/b)처럼 수반적 술어를 사용하는 방법이 더 많이 쓰인다고 할 수 있다. 이때 수반적 술어는 그가 목적어로 취하는 이동수단의 종류에 따라 각각 다르게 나타날 수 있다(예34,b 참조).

- (33) a. 그-는 기차-를 타고 갔-다.
 3.SG-TOP [Zug-AKK besteig:GER] geh:PRT-DEKL
 b. 나-는 오늘 자전거-를 타고 왔-다.
 1.SG-TOP heute [Fahrrad-AKK besteig:GER] komm:PRT-DEKL
 c. 그-는 기차-로 갔-다/왔-다.
 3.SG-TOP Zug-INST/ALL geh:PRT-DEKL/komm:PRT-DEKL

물론 (예34,a)처럼 이동수단이 이동의 목적지로 해석될 여지가 없는 경우나 이동을 위한 신체일부의 기능을 할 때는 도구격으로 표시될 수 있다. (예34,b)의 경우에는 목발이 신체일부로 붙어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의 독립된 기계적 이동수단이다. 그러나 어떠한 경우에도 (예32)처럼 동물이 이동수단으로

나타날 때는 도구격이 쓰이지 않는다.

- (34) a. 그는 목발-로 천천히 걸어 갔-다.
 3.SG-TOP Krücke-INST langsam lauf:GER geh:PRT-DEKL
 b. 그는 목발-을 짚-고 걸어 갔-다.
 3.SG-TOP [Krücke-AKK lehn-GER] lauf:GER geh:PRT-DEKL

운반수단을 표현할 때는 또 다른 수반적 술어를 사용하는데, 일반적으로 동물이나 기계적인 이동수단을 표현할 때는 ‘실고’가 자주 쓰인다(예35,a). 더 나아가 신체의 일부가 운반수단으로 사용되는 등 운반수단의 특성에 따라 그에 상응하는 의미를 가진 다른 술어가 쓰일 수 있다. (예35,b)처럼 운반수단이 머리일 경우에는 ‘이-고’, 어깨일 경우에는 ‘메-고’가 쓰인다(예35,c). 이들 수반적 술어 역시 이동수단의 명사를 장소격으로 표시하는 특징을 그대로 가지고 있다.

- (35) a. 그는 짐-을 자전거/말-에 실-고 갔-다.
 3.SG-TOP Gepäck-AKK Fahrrad/Pferd-LOK auflad-GER] geh:PRT-DEKL
 b. 그는 짐-을 머리-에 이-고 왔-다.
 3.SG-TOP Gepäck-AKK [Kopf-LOK auflad-GER] komm:PRT-DEKL
 c. 그는 짐-을 어깨-에 메-고 달렸-다.
 3.SG-TOP Gepäck-AKK [Schulter-LOK auflad-GER] lauf:PRT-DEKL

운반수단은 도구격을 이용하여 표현할 수도 있다. 그러나 도구격을 이용한 방법은 주로 어떤 기계적 운반수단을 표현할 때 쓰이며(예36,a), 동물이나 신체의 일부가 운반수단일 경우에는 쓰이지 않는다(예36,b). 즉 후자의 경우는 (예35)에서 언급한 것처럼 수반적 술어를 통해 표현하는 방법이 일반적이다.

- (36) a. 그는 자전거/자동차-로 음식-을 배달했-다.
 3.SG-TOP Fahrrad/Auto-INST Essen-AKK liefer:PRT-DEKL
 b. ?그는 말/어깨/머리-로 음식-을 배달했-다.
 3.SG-TOP Pferd/Schulter/Kopf-INST Essen-AKK liefer:PRT-DEKL

이상으로 본 것처럼 한국어에서 이동 및 운반수단을 표현하는 가장 일반적인 방법은 수반자적 술어를 사용하는 것이다. 도구격의 쓰임은 차선의 보조적 방법이거나 기계적 운반수단을 표현할 때처럼 상대적으로 제한적으로 쓰인다. 명사의 포함이나 품사전환과 같은 방법은 거의 찾아볼 수 없다.

3.4. 조작수단(Tool)

어떤 조작행위의 상황을 표현할 때 그 행위의 수단이 명시적으로 언급되지 않는 경우가 많다. 이는 어떤 조작행위를 나타내는 많은 동사들은 그 의미에 이미 그 행위의 잠재적 수단을 내포하고 있거나(즉, Lexikale Fusion) 또는 문맥을 통해서 충분히 추론할 수 있기 때문이다(Nilsen 1973: 57-58 참조). 이러한 경우 대부분의 동사는 가장 원시적 또는 1차적 수단인 신체의 일부와 함께 이해되며, 그들의 언급은 필수적인 것이 아니다. 하지만 만일 그 조작행위의 수단으로 어떤 특별한 것이 쓰일 경우에는 그 조작수단은 명시적으로 언급되어야 한다. 예를 들자면 동사 malen의 경우 그 행위에 사용되는 가장 일반적인 조작수단은 ‘손’이다. 즉 이때 손을 조작수단으로 별도로 언급하는 것은 필요치 않다(예37.a vs. 37.b). 그러나 그 외의 특별한 것이 조작수단으로 쓰일 때는 (예37.c/d/e)처럼 명시적으로 언급해야 한다.

- (37) a. Er malt (ein Bild).
 b. ?Er malt (ein Bild) mit der Hand.
 c. Er malt (ein Bild) mit der linken Hand.
 d. Er malt (ein Bild) mit dem Fuß.
 e. Er redet mit den Händen.

신체일부를 제외한 전형적인 이차적 조작수단은 인공물(Artefakt)이다(예 38.a). 그 외에도 물질명사가 조작수단으로 나타나는 경우도 있다(예38.b/c). 물론 독일어는 이동 및 운반 수단과는 달리 조작수단은 그 의미자질에 구애 받지 않고 항상 전치사 mit을 통해서 표현된다.

- (38) a. Er zerschlug das Fenster mit dem Hammer.
 b. Er hat sich das Gesicht mit Ruß beschmiert.
 c. Er hat die Gäste mit Wasser besprengt.

위와 같은 부치사표시 방법 외에 독일어에서는 제한적이긴 하지만 품사전환을 통해 조작수단을 표현하는 방법이 있다. 어떤 도구를 표현하는 명사에서 파생된 동사, 이른바 도구의 동사(instrumentales Verb) 중 신체의 일부가 조작수단으로 쓰이는 행위를 나타내는 동사의 예로 독일어에는 köpfen(Kopf), fußeln(Fuß) 같은 것을 들 수 있고, 다른 인공적인 도구가 조작수단으로 쓰이는 행위를 나타내는 동사로 는 bügeln(Bügel), hämmern(Hammer), kämmen(Kamm), sägen(Säge), pflügen (Pflug), pinseln(Pinsel), scheren(Schere) 같은 것이 있다. 그 사용의 예는 다음과 같다.

- (39) a. Er hat den Ball (ins Tor) **geköpft**.
 b. Zuerst musst du dir den Staub aus den Haaren **kämmen**.
 c. Er **sägte** den Balken in zwei Teile.
 d. Obwohl er verheiratet war, **bügelte** er sich seine Hemden selbst.
 e. Rosie **hämmerte** auf die Theke.
 f. Links von mir fuhr eine Frau einen brandneuen BMW mit über 130 km/h, ihr Gesicht ganz nah am Spiegel, und **pinselte** ihre Augenlider.

그 외에 이론적으로는 명사포함과 같은 것도 조작수단을 표현하는 방법이 될 수 있으나 독일어에서는 그 사용의 예를 찾아보기 어렵다.

한국어는 조작수단을 표현할 때 대표적으로 격표시 방법을 사용한다. 격조사 ‘-(으)로’는 수반자의 의미자질에 구애받지 않고 (예40)처럼 신체의 일부나 또는 (예41)처럼 어떤 인공적인 조작수단을 표현할 때 일관되게 쓰인다(cf. Sohn 1994: ch. 2.1.1.4.3).

- (40) a. 그 남자-는 . 발-로 글-을 잘 쓴-데.
 D3 Mann-TOP Fuß-INST Schrift-AKK gut schreib:PRS-EVID
 b. 그-는 목발-로 문-을 썼-다/찾-다.
 3.SG-TOP Krücke-INST Tür-AKK schalg:PRT-DEKL/tret:PRT-DEKL

- (41) a. 우리-는 젓가락-으로 밥-을 먹-는-다.
 1.PL-TOP Stäbchen-INST Reis-AKK ess-PRS-DEKL
 b. 그-는 망치-로 못-을 박-았-다.
 3.SG-TOP Hammer-INST Nagel-AKK einschlag-PRT-DEKL

격표시 방법과 더불어 수반적 술어를 이용한 방법도 조작수단을 표현하는 데 쓰일 수 있다. 이때 사용되는 대표적인 술어는 ‘가지고’이며 조작수단의 명사는 동사 ‘가지다’의 논항구조의 영향을 받아 목적격으로 표시 된다(예42). 그러나 이는 격표시 방법에 비해 상대적으로 그 용법이 제한되어 있다. 즉 술어적 방법은 (예42.a)처럼 신체의 일부가 조작수단으로 나타나는 경우나, 특히 (예43.a) 어떤 주어진 상황의 자연스럽고 당연히 추론될 수 있는 조작수단을 표현할 때는 잘 쓰이지 않는다.

- (42) a. ? 그-는 발-을 가지-고 글-을 잘 쓴-데.
 3.SG-TOP Fuß-AKK hab-GER Schrift-AKK gut schreib:PRS-EVID
 b. ? 그-는 목발-을 가지-고 문-을 찼-다.
 3.SG-TOP [Krücke-AKK hab-GER] Tür-AKK tret:PRT-DEKL
- (43) a. ?우리-는 젓가락-을 가지-고 밥-을 먹-는-다.
 1.PL-TOP Stäbchen-AKK hab-GER Reis-AKK ess-PRS-DEKL
 b. 그-는 망치-를 가지-고 차-를 부수-었-다.
 3.SG-TOP [Hammer-AKK hab-GER] Auto-AKK brech-PRT-DEKL

술어적 용법의 제한은 (예40.b)와 (예42.b)의 비교를 통해서도 잘 알 수 있다. (예42.b)의 경우 ‘목발’이 독립된 보조기구가 아니라 신체에 부착된 ‘의족’이라면 수반적 술어 ‘가지고’와 결합하여 쓰일 수 없다. 따라서 여기에는 동사 ‘찼다’와 쓰일 수 없다. 그 반면에 (예40.b)와 같은 격표시 방법에는 이러한 제한이 없다. 즉 한국어에서 조작수단을 표현할 때는 격표시 방법이 가장 대표적이며, 술어적 방법은 보조적이거나 그 용법이 제한되어 있다. 그 반면에 독일어는 일관되게 부치사표시 방법을 사용하며, 이때 항상 전치사 mit가 쓰인다.

3.5. 사용재료(Material)

사용재료는 행위자 Y가 피행위자 Z를 생산하거나 만들 때 사용하는 참여자 X를 말한다. 독일어에서는 조작수단과 사용재료의 관계가 그것을 표현하는 형태적 수단에 따라 구별된다. 사용재료 관계에 놓여있는 수반자 X는 (예 44)처럼 일반적으로 전치사 aus를 통해 표시 된다. 사용재료의 관계를 탈격(Ablativ)의 기능을 가지고 있는 전치사 aus를 통해 표현하는 것은 독일어에서는 수반자 X가 어떤 생산물의 ‘근원(Ursprung)’으로 개념화 되어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 (44) a. Er hat ein Haus aus Ziegelsteinen gebaut.
 b. Er hat ein Spielzeug aus Holz gebastelt.
 c. Das Unternehmen produzierte [...] die Armbänder aus massivem Edelstahl beziehungsweise aus fein verarbeitetem Leder, Gummi oder Kevlar.

예외적으로 (예45)처럼 전치사 mit를 사용할 수도 있으나, 이러한 경우에는 전치사 aus를 사용한 문장과는 다음과 같은 의미적으로 차이를 가지고 있다. 즉 (예44)는 Haus와 Spielzeug가 전적으로 Ziegelstein과 Holz로 만들어진 상황을 표현하는 반면에 (예45)의 구문은 Haus와 Spielzeug를 만드는데 된 여러 가지 재료가 사용되었는데 Ziegelstein과 Holz는 그들 재료중의 하나에 포함되어있다는 상황을 표현하는 것이다. 즉 이때 전치사 mit는 ‘Das Material X ist auch da’의 의미에서 주 사용재료와 일종의 동반관계를 표시한다고 볼 수 있다.

- (45) a. Er hat ein Haus mit Ziegelsteinen gebaut.
 b. Er hat ein Spielzeug mit Holz gebastelt.

한국어는 조작수단과 마찬가지로 피행위자의 사용재료를 표시할 때는 격조사표시의 방법을 사용하며, 이때 도구격 ‘-(으)로’가 쓰인다(예46).

- (46) a. 그는 종이-로 배-를 만들-었다.
 3.SG-TOP Papier-INST Schiff-AKK bastel-PRT-DEKL
 b. 이 장갑-은 소가죽-으로 만든 것이다.
 D1 Handschuhe-TOP Rindleder-INST bastel:AT Ding-KOP

격조사표시와 더불어 수반적술어를 이용한 방법도 가능하다. 이때 조작수단과 마찬가지로 '가지고'가 수반적 술어로 쓰인다. 이때 사용재료는 수반적 술어의 목적으로 표시된다. 한국어에서는 수반적 술어에 비해 격표시 방법이 상대적으로 더 자주 쓰인다. 경우에 따라서는 복합명사를 이용한 방법도 있으나 이러한 경우에는 수반자 X의 참여자 위상을 잃게 된다.

- (47) a. 그는 종이-를 가지-고 배-를 만들-었다.
 3.SG-TOP [Papier-AKK hab-GER] Schiff-AKK bastel-PRT-DEKL
 b. 그는 종이배-를 만들-었다.
 3.SG-TOP Papier.Schiff-AKK bastel-PRT-DEKL

한국어에서는 사용재료가 어떤 도구의 개념으로 표현되며, 그에 상응하여 도구관계를 표현하는 격조사와 수반적 술어가 사용재료를 표현하는데 그대로 사용된다. 즉 조작수단과 사용재료의 영역 사이의 형태적 겹침현상이 존재한다는 것을 알 수 있다.

4. 마무리

파트너 관계: 독일어와 한국어 모두 상호적 파트너관계를 표현하는데 쓰이는 별도의 문법적 수단은 찾아볼 수 없다. 파트너 관계를 표현하는 방법은 동반자관계를 표현하는 방법 — 즉 부치사표시나 격표시 — 과 다르지 않다. 동반자관계와 차이점은 파트너를 타동사의 직접목적어로 취할 수 있다는 점이다. 한국어와 독일어에 공통적으로 나타나는 특징은 수반적 부사(zusammen, 함께, 같이)가 상호적 파트너관계를 표현하는데 쓰이지 않는다는 것이다.

동반자 관계: 독일어는 일관되게 부치사표시의 방법 — 즉 전치사 mit — 을 통하여 동반자 관계를 표현한다. 그 반면에 한국어는 동반자의 유정성에 따라 표현방법을 달리할 수 있다. [+menschlich] 또는 [+belebt]의 의미자질을 가진 동반자 관계를 표현할 때는 격표시방법 또는 수반적 술어의 방법이 쓰일 수 있으나, [-belebt]의 의미자질을 가진 동반자 관계는 수반적 술어의 방법을 통해서만 표현될 수 있다. 그 외에 한국어는 [-belebt]의 의미자질을 가진 동반자는 행위자의 한시적 소유관계(또는 소유적 통제)에 놓여있는 참여자로 개념화되어있다. 그에 상응하여 소유관계를 나타내는 동사가 무정성의 동반자를 표시하는데 쓰인다. 이러한 방법은 한국어에서 동반자관계 뿐만 아니라 조각수단, 사용재료 등의 의미역을 표현할 때도 쓰일 수 있다.

이동 및 운반수단: 독일어는 이동 및 운송수단을 표현하는데 다양한 전치사를 사용한다. 특히 이동수단과 운반수단을 표현수단에서 차이를 보이고 있다. 이동수단은 전반적으로 도구의 개념으로 표현되는데 비해 운송수단의 표현은 장소(Lokation)로 개념화 되어 그에 상응하는 전치사(auf, in, zu)를 사용한다는 것이다. 이는 신체의 일부가 이동수단으로 사용되는 경우에도 마찬가지다. 한국어는 수반자의 유정성에 민감하다. [+belebt]의 의미자질을 가진 이동 및 운반수단의 표현에는 격표시 방법이 쓰이지 않고 수반적 술어가 사용된다. 한국어와 독일어는 운반수단을 장소의 개념으로 표현한다는 공통점을 가지고 있다.

조작수단: 독일어에는 조작수단을 표현할 때 일관되게 하나의 전치사 — 즉 mit — 를 사용한다. 품사전환도 조작수단을 나타내는 하나의 표현양식임을 보여준다. 한국어에는 격표시 ‘-(으)로’와 수반적 술어 ‘가지고’의 두 가지 방법이 가능하지만, 수반적 술어는 신체의 일부가 조작수단으로 나타날 때에는 잘 쓰이지 않거나 그 용법이 제한적이다. 전체적으로 보면 수반적 술어보다 격표시 방법을 선호하는 경향을 보이고 있다.

사용재료: 독일어에는 사용재료가 다른 피행위자의 Source의 개념으로 이해되며, 그에 상응하여 재료관계를 표현할 때 탈격 의미의 전치사 aus가 쓰인다. 그 반면에 한국어에서는 수단의 개념으로 표현되어 도구격 ‘-(으)로’가 쓰인다. 수반적 술어 ‘가지고’의 사용도 가능하나 사용재료의 관계를 표현할 때는 격표시방법이 더 자연스럽다.

독일어와 한국어의 수반자관계 표현수단의 분포도는 다음과 같다.

	독일어		한국어
	부치사표시	격표시	수반적술어
파트너	mit	-와/-과/-하고	
동반자	mit	-와/-과/-하고	데리고, 모시고, 들고, 물고 등
조작수단	mit	-(으)로	가지고
이동/운반수단	auf, in, mit, zu	-(으)로	타고, 싣고, 이고, 지고, 메고 등
사용재료	aus	-(으)로	가지고

위 표는 다양한 수반자관계가 어떤 하나의 방법과 하나의 형태적 수단을 통해서만 표시되는 게 아니라 다양한 표현방법과 같은 방법 안에서도 쓰이는 형태적 수단은 여러 가지로 나타날 수 있다는 것을 보여준다. 독일어에는 Synkretismus가 ‘파트너=동반자=조작수단’에서 뚜렷하게 나타나는 반면 한국어에는 그것이 ‘파트너=동반자’와 ‘조작수단=이동/운반수단=사용재료’처럼 양분되어 있음을 알 수 있다. 한국어는 수반적 술어와 격표시의 방법을 적절히 섞어 거의 같은 비중으로 사용하는 경향을 보이고 있다. 부치사 표시, 동사의 변환, 명사의 포함, 품사의 전환과 같은 방법은 사용되지 않는다. 특히 이동 및 운반 수단을 표현할 때는 수반적 술어의 방법을 격표시 방법보다 선호하는 경향을 보이며, 전반적으로 표현방법과 그 형태적 수단에 있어서 수반자의 유정성에 민감하게 반응하는 특징을 지니고 있다. 그 반면에 독일어는 전형적으로 부치사표시의 방법을 선호하고 이러한 전략 안에서 수반관계의 세부적인 특성과 수반자 자신의 의미특질에 따라 다양한 전치사(mit, zu, aus, auf)를 사용한다. 독일어의 수반적 부사 zusammen 역시 수반자의 유정성에 민감하게 반응을 하는데, 이 수반적 부사는 일반적으로 행위자와 그의 수반자가 유정참여자의 위계에 같은 레벨에 있을 경우에 첨가될 수 있다. 이것은 수반적 부사는 이동수단, 조작수단, 사용재료의 관계를 표현할 때에는 쓰이지 않는다는 것을 의미한다. 왜냐하면 이러한 상황에서는 수반자가 유정성의 위계로 볼 때 행위자보다 낮은 단계에 위치하고 있기 때문이다.

끝으로 독일어와 한국어의 대조를 통한 유형적 연구의 결과가 보여주듯이 두 언어는 여러 가지 수반관계의 다양한 표현방법들을 다 보여주지 못하고

있다. 보다 많은 언어들에 연구 대상으로 삼는 경험적 연구뿐만 아니라 ‘양태 (Manner)’를 비롯하여 ‘부가적 상황(Circumstance)’까지 하나의 기능적 영역으로 포함시켜 수반자관계의 기능적 영역을 좀 더 넓은 범위까지 확대시키는 이론적 작업이 후속 연구의 과제로 남아 있다.

약자

1	erste Person	D1	prox. Deixis	KOP	Kopula
2	zweite Person	D2	distale Deixis	LOK	Lokativ
3	dritte Person	D3	Textdeixis	PL	Plural
ABS	Absolutiv	DAT	Dativ	PRS	Präsens
ADD	Additiv	DEKL	Deklarativ	PRT	Präteritum
AKK	Akkusativ	ERG	Ergativ	PST	past
ALL	Allativ	EVID	Evidential	SG	Singular
AT	Atributor	GER	Gerundivum	TOP	topic
COM	comitative	INST	Instrumental		

참고문헌

- Bisang, Walter (1992): *Das Verb im Chinesischen, Hmong, Vietnamesischen, Thai und Khmer. Vergleichende Grammatik im Rahmen der Verbserialisierung, der Grammatikalisierung und der Attraktorpositionen*. Tübingen: G. Narr (Language Universal Series, 7).
- Dixon, Robert M.W. (1977): *A grammar of Yidiñ*. Cambridge etc.: Cambridge University Press (Cambridge Studies in Linguistics, 19).
- Evans, Nicholas (1997): “Role or Cast? Noun Incorporation and Complex Predicates in Mayali.” Alsina, Alex & Bresnan, Joan & Sells, Peter (eds.) *Complex Predicates*. Stanford: CSLI Publications, 379-430.
- Givón, Talmy (1994): *Syntax. A functional-typological introduction*. vol. I. Amsterdam & Philadelphia: John Benjamins.
- Haspelmath, Martin (1995): “The converb as a cross-linguistically valid category.” Haspelmath, Martin & König, Ekkehard. (eds.): 1-55.
- Haspelmath, Martin & König, Ekkehard (eds.) (1995): *Converbs in cross-linguistic*

- perspective. Structure and meaning of adverbial verb forms - adverbial participles, gerunds.* Berlin & New York: Mouton de Gruyter (Empirical Approaches to Language Typology, 13).
- Kuno, Susumu & Kaburaki, Etsuko (1977): "Empathy and syntax." *Linguistic Inquiry* 8:627-672.
- Kuno, Susumu (1987): *Functional syntax. Anaphora, discourse and empathy.* Chicago: Chicago University Press.
- Lakoff, George & Johnson, Mark (1980): *Metaphors we live by.* Chicago & London: The University of Chicago Press.
- Lehmann, Christian & Shin, Yong-Min & Verhoeven, Elisabeth (2000): [Z], "Zur interlingualen Ebene in der typologischen Analyse." *Göttinger Beiträge zur Sprachwissenschaft* 2000, 3:57-71.
- Lehmann, Christian & Shin, Yong-Min (2000): [T] (unpubliziert), *The functional domain of concomitance, A typological study of linguistic representation of concomitant relations.* Universität Erfurt: DFG-Projekt Arbeitspapier Nr. 4,
- Nilsen, Don L. F. (1973): *The instrumental case in English. Syntactic and semantic considerations.* The Hague & Paris: Mouton.
- Seiler, Hansjakob (1974): "The principle of concomitance: Instrumental, comitative and collective (with special reference to German)." Seiler (ed.):255. (*Foundations of Language* 12:215-247).
- Seiler, Hansjakob (ed.) (1974): *Linguistic workshop II.* Arbeiten des Kölner Universalienprojekts 1973/4. München: Fink (Structura, 8).
- Shin, Yong-Min (2002): *Possession und Partizipantenrelation: Eine funktional-typologische Studie zur Possession und ihren semantischen Rollen am Beispiel des Deutschen und Koreanischen.* Uni. Erfurt: Diss.
- Sohn, Ho-min (1994): *Korean.* London & New York: Routledge (Descriptive Grammars).
- Stolz, Thomas (1994): *Natürlichkeit und Grammatikalisierung, Prädiktabilität von struktureller Organisation und Dynamik. Über Komitative.* Essen: Fachbereich Sprach- und Literaturwissenschaft an der Universität GH Essen (ProPrins, 24).
- _____ (1996a): "Komitativ-Typologie. mit und ohne-Relationen im crosslinguistischen Überblick." *Papiere zur Linguistik* 51 (1):3-66.
- _____ (1996b): "Some instruments are really good companions some are not. On syncretism and the typology of instrumentals and comitatives."

Theoretical Linguistics 23 (1/2):113-200.

_____ (1997): "Two comitatives or more: On the degree of involvement of participants." in: Gather, Andreas & Werner, Heinz (eds.), *Semiotische Prozesse und natürliche Sprache*, Festschrift für Udo L. Figge, Stuttgart: Steiner, 515-530.

_____ (2001): "Comitatives vs. instrumentals vs. agent." Bisang, Walter (ed.), *Aspects of Typology and Universals*. Berlin: Akademie (Studia Typologica, 1):153-174.

_____ (2001): "To be with X is to have X: comitatives, instrumentals, locative, and predicative possession." *Linguistics* 39 (2): 321-350.

Zifonun, Gisela (1999), "Wenn *mit* allein im Mittelfeld erscheint. Verbpartikel und ihre Doppelgänger im Deutschen und Englischen." Wegener, Heide (Hrsg.), *Deutsch Kontrastiv, Typologisch-vergleichende Untersuchungen zur deutschen Grammatik*. Tübingen: Stauffenburg (Studien zur deutschen Grammatik, 59), 211-235.

Zusammenfassung

Eine typologische Studie zur sprachlichen Repräsentation der komitativen und instrumentalen Relationen am Beispiel des Deutschen und Koreanischen

Shin, Yong-Min(Gyeongsang Univ./Chonnam Univ.)

In der vorliegenden Arbeit wird die funktionale Domäne der Konkomitanz unter funktional-typologischen Gesichtspunkten untersucht. Dabei wird ein funktionales Rahmenwerk für die Untersuchungen über die verschiedenen komitativen und instrumentalen Relationen entwickelt. Es gibt eine Reihe von Partizipantenrelationen in der funktionalen Domäne der Konkomitanz, nämlich 'Partner', 'Companion', 'Vehicle', 'Tool', 'Material' und 'Manner'. Diese Partizipanten können als Konkomitant bezeichnet werden. Sie bilden ein Kontinuum bezüglich der Empathiehierarchie sowie der Kontrollhierarchie.

Konkomitanten können bei ihrer syntaktischen Kodierung gemäß den spezifischen Typen der konkomitanten Relationen und ihren absoluten Eigenschaften variieren. Es

werden sieben verschiedene Typen der Kodierungsstrategien vorgestellt, d.h. konkomitante Prädikation, adpositionale Markierung, Kasusmarkierung, Verbderivation, Inkorporation, Konversion und lexikale Fusion. In einer gegebenen Sprache kann es natürlich feinere Variation, die z.B. mit den Graden der Grammatikalisierung und Lexikalisierung dieser Kodierungsstrategien zu tun hat, geben.

Die Distribution der strukturellen Apparaturen auf der funktionalen Domäne der Konkomitanz ist innerhalb einer Sprache nicht einheitlich. Dies gilt auch für die Sprachen (z.B. Deutsch und Englisch), die gewöhnlich als ein typisches Beispiel für den Synkretismus zwischen Komitativ und Instrumental angesehen werden. Die Präposition *mit* im Deutschen drückt nur eine Teilmenge der verschiedenen konkomitanten Relationen aus. ‘Transportmittel’ und ‘Material’ werden also nicht durch die Präposition *mit* ausgedrückt. Beim Ausdruck der konkomitanten Relationen verwendet Deutsch konsistent die Strategie der adpositionalen Markierung. Andere mögliche Strategien können als ein minimaler Sonderfall angesehen werden.

Koreanisch verfügt hingegen auf zwei Ausdrucksstrategien, nämlich konkomitante Prädikation und Kasusmarkierung. Die Auswahl zwischen den beiden Strategien ist meistens von den Empathieeigenschaften der Konkomitanten abhängig. Auch innerhalb einer Ausdrucksstrategie spielt die Empathie der Konkomitanten eine wichtige Rolle bei der Auswahl der Strukturmittel. Einen Synkretismus weisen im Koreanischen ‘Partner’ & ‘Companion’ einerseits und ‘Vehicle’ & ‘Tool’ & ‘Material’ andererseits auf. Die Ersteren werden durch die additive Kasusmarkierung und die Letzteren durch die instrumentale Kasusmarkierung ausgedrückt.

Ein Synkretismus beim Ausdruck der verschiedenen konkomitanten Relationen ist in den Sprachen, die nur konkomitante Prädikation aufweisen, nicht zu erwarten, denn ein konkomitantes Prädikat gibt die Art der Beteiligung der Konkomitanten an der Situation lexikalisch mehr oder weniger explizit wieder.

[검색어] 언어유형론, 의미론, 기능문법, 의미역, 동반격, 도구격, 동반관계, 도구관계
Sprachtypologie, Semantik, funktionale Grammatik, semantische Rolle,
Komitativ, Instrumental, komitative Relation, instrumentale Relation.

신용민 660-701
경남 진주시 가좌동 900번지
경상대학교 인문대학 독어독문학과
shinyongmin@yahoo.com

논문 접수일: 2004. 10. 31
논문 심사일: 2004. 11. 28